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생각 다스리기

“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

(고후 10:5)

충현교회 70년사 배부

일시: 10월 8일(오늘)

1부 예배 후~교구모임 전

장소: 코이노니아홀 (인수증 작성후 배부)



신혼가정부 가을 수련회

주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라(고후 5:18~19)

일시: 10월 13일(금)~14일(토)

장소: 충현기도원

신혼가정부 주관 금요일집회

일시: 10월 13일(금) 금요일집회시

충현 대안학교 설명회

일시: 10월 15일(주일) 16:40~17:40

강사: 윤은성 목사 (전국 어깨동무 대안학교 대표 교장)

대상: 성경적 가치관의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성도

장소: 갈릴리홀

중·고등부 학습, 세례 입교식

일시: 10월 15일(주일) 찬양예배시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만 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고정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고 축복으로 보이고, 시련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보이며, 문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내면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 생각을 가꾸 나갈 때 지금의 상황에 묶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제2차 학습, 세례식(성인) 안내

대상: 학습(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세례(학습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신청: 선교관 1층 사무국, 온라인 접수(QR코드), 교구 및 부서 담당 교역자

신청마감: 10월 8일(주일)까지

문의: 권혁근 목사(010-8615-9577)



2023 동역교회 지원 사랑실천 바자회

기간: 10월 18일(수)~22일(주일) 시식 및 주문 장소: 코이노니아 홀

품목: 꿀, 포도, 사과, 된장, 고추장, 상추 등

판매방법: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3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피터 알렉 총장 조나단 김순 교수 한규삼 목사 권성수 교수 강명옥 박사 권혁민 교수

장소 **충현교회** 대상 **충현교회 모든 성도**

일시 **23. 10. 17. (화) 09:30 - 15:30**

1부 사회 권혁민 교수 (리딩지저스 발행인)

오프닝

리딩지저스 사역의 의미와 가치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끝맺음(행 28:30-31)에 나타난 그리스도 중심성

성경과 성령: 주님과 밀착

2부 사회 김은수 목사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 공동대표)

그리스도 중심 목성과 기도

리딩지저스 소개와 현황

포럼

주최

충현교회 /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

등록 및 신청 (점심제공)

온라인 : 홈페이지 및 QR코드 /
오프라인 : 각 교구 간사 또는
부서 담당 교역자

등록마감

10월 8일(오늘)까지

문의

김승래 목사(010-5526-1324)
최병일 안수집사(010-7534-2952)



지난 주일(10월 1일) 설교 되새기기

죽은 후 ‘몸’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42-46)



고린도 서신은 로마서보다 읽기는 수월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분쟁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에 다소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약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역지에서는 3개월 남짓 사역하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핍박으로 그곳을 떠나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 기간은 매우 길었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서 차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롬 16:4a)” 고린도에서 바울은 선교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도착했을 때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차츰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져 자라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은 ‘아볼로’입니다. 바울의 후임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했던 아볼로는 당대의 지식인이자 언어의 은사가 있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중 누가 더 훌륭한가’라는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사역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핍박에 실망하여 떠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성(고린도)의 백성이 많은데 그들을 두고 네가 어디를 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첫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사역하였지만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은 어려움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 자격에 대하여 의심을 받았고, 고린도에서 사역할 자격이 없다는 폄하를 받기도 했으며, 그의 사역 동기에 대해 의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브루스 윈터의 “바울이 떠난 다음의 고린도”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전 1:11)” 첫 번째 경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직접 바울을 방문하여 이야기 해 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하여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전 7:1)” 두 번째 경로는, ‘너희가 쓴 문제’ 즉,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우상의 제물로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결혼을 해야 하는지 등을 질문했습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예배시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만 하는지, 배고픔으로 인해 성찬의 떡을 많이 집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부활의 문제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부활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전 15:35)”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 그 자체 보다 수준 높은, ‘부활한 후에 갖게 되는 몸과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육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에 대하여 관심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고전 15:36-38)” 바울은 이 땅에 죽어 사라질 육신의 몸을 씨앗에, 씨앗으로부터 더 화려하게 자라나는 식물은 부활할 때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과 못 알아본 사람이 있는 이유입니다. 부활체의 핵심인 연속성과 놀라운 발전은, 우리가 부활을 체험할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2-44절)” 부활할 때 우리는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저는 부활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몸은 썩기 쉽고, 육됨과 무능력이 특징이며, 육에 속한 것으로 활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좋은 것을 가질 때 몸에 엔돌핀이 돌고 활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활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며, 그 안에 생명의 활력과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할 것입니다”라는 어느 신학자의 주해는 부활을 마음속 깊이 사모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활력과 영광의 능력으로 덧입혀져 오히려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됨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적용하는 부활신앙

비록 부활 후의 몸을 지금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일부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지는 못해도 그 일부를 경험할 수 있는 원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한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고전 3:16-17)” 성경은 우리의 몸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잠시 거처하던 장막에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생활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지음으로 끝났듯, 우리의 육신은 장막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 성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에 거할 때에는 성령과 우리의 영이 따로 거하지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면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됩니다. 부활의 몸이 겪게 될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과의 완벽한 동행도 가능해 집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교훈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음행을 삼갈 이유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두 번째 적용으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리는 단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의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그 지식 가운데, 부활과 부활의 때에 있을 영광의 모습을 사모하며, 부활의 영광을 지금부터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What Will Happen to the 'Body'
After Death?

(1Corinthians 15:42-46)

Rev. Kyu Sam Han

Epistles to the Corinthian churches are easier to read than Romans, but the atmosphere of it is a little bit ponderous because it deals with the conflicts which arose at that period. The Apostle Paul pioneered the Corinthian church and stayed in Corinth for about one year and six months. In comparison with that he ministered over three months in other places from which he had to leave due to the persecutions imposed on him for spreading the gospel, the period of ministering in the Corinthian church is significantly longer. Corinth, which was located in the distance of one hour by car from Athens the capital city of Greece, was an international city highly central in Greece at the time. "who risked their necks for my life,(Rom 16:4a)" In Corinth, Paul met Priscilla and Aquila, a couple who became great co-workers for his missionary work. When Paul with Silas and Timothy reached Corinth for the first time, there were no believers, but gradually the fruits of ministry appeared, and the church was established and grew.

Paul's ministry in the Corinthian church

According to Romans, disappointed at the persecutions in Corinth, Paul tried to quit the place, but God told him 'I have many in this city who are my people. Where do you try to go leaving them behind?' It was the first proclamation that not only Jews but also Gentiles are the people of God. Although ministering by receiving the revelation from God, Paul suffered great difficulties in Corinth. Paul was suspected of the qualification of the apostleship, underestimated as not to be qualified to minister in Corinth, and also suspected of the motive for his ministry. Nevertheless, Paul could not give up the Corinthian church. After Paul Left Corinth by Bruce W. Winter is a book that neatly summarizes the problems of the Corinthian church after Paul left Corinth. Paul came to know the problems of the Corinthian church through two routes. "For it has been reported to me by Chloe's people that there is quarreling among you, my brothers.(1Cor 1:11)" The first route was that believers of the Corinthian church visited, telling Paul in person. Paul proposed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the Corinthian church suffered through 1 Corinthians 6-7. "Now concerning the matters about which you wrote: "It is good for a man not to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woman."(1Cor 7:1). The second route was 'the matters about which you wrote', that is, the letters from the believers of the Corinthian church. Through the letters, the Corinthian church asked Paul whether it would be acceptable to eat food offered to idols, whether it would be reasonable that they should get married when the time of the Lord's coming was approaching, and so on. Concerning the worship service, they also asked whether every woman should have her head covered during the worship service, and how to treat the one who takes more than his own supper due to hunger in the Lord's Supper, etc.

The issue of resurrection

The last issue dealt with in 1 Corinthians is the resurrection. "But someone will say, "How are the dead raised up? And with what body do they come?"(1Cor 15:35). The members of the Corinthian church wondered about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dy they will possess after the resurrection and the body they have while living in this world?', which is a higher level than the resurrection itself. This was because they were deeply interested in the faith of resurrection. "Foolish one, what you sow is not made alive unless it dies. And what you sow, you do not sow that body that shall be, but mere grain—perhaps wheat or some other grain. But God gives it a body as He pleases, and to each seed its own body.(1 Cor 15:36-38). Paul explained by comparing the body which shall die and disappear on this earth to the seed, and the plant more splendidly growing from the seed to the body at the time of resurrection. That's why there

were those who were aware of resurrected Jesus and those who were not even among the disciples of Jesus. The core of the resurrected body which is continuity and amazing development occurs equally when we experience the resurrection.

"What is sown is perishable; what is raised is imperishable. It is sown in dishonor; it is raised in glory. It is sown in weakness; it is raised in power.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Cor 15:42-44)". When we resurrect, we shall be raised as a divine body, a spiritual body. Through the amazing process that the body is raised up in incorruption, in glory, and in power, I came to aspire to the resurrection more. Here is the strength through which we can overcome our fragility while living in this world. An exegesis of a theologian, "The present body is likely to be corrupted, characterized by disgrace and incompetence, getting active force through what belongs to the flesh. For illustration, when eating food, and having good things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the world, Endorphins circulate in your body and you feel energized. However, the resurrected body will be like the body of Jesus, and the life force and the glory and the power will be full of the body." leads us to the faith of aspiring for the resurrection deeply in the heart. This is because even though our body has some fragilities while living on this earth, we can hope they are covered with energy, glory, and ability so that they will be transformed into proud figures.

The resurrection faith applied to life

Though we can not have the body after the resurrection, we can enjoy a part of it. It is the same principle that believers cannot possess the kingdom of heaven on this earth, but experience a part of it. The first application of the lesson about the body after the resurrection Paul gave us to our life is to remember the fact that our body is God's temple.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dwells in you? If anyone destroys God's temple, God will destroy him. For God's temple is holy, and you are that temple.(1Cor 3:16-17)". The Bible compares our bodies to the tent in which the Israelites sheltered in for the time being while they were living in the wilderness. As if the Israelites' life of the tent ended by building the God's temple, our bodies are tents, but since we have become the children of God, we have become God's temple by God's power being added. When we stay in the body, the Holy Spirit and our soul stay separately, but when we become God's temple, the Holy Spirit and our soul are associated. This is the marvelous mystery that a resurrected body will experience. To be a perfect companion to Jesus becomes possible. Like the lesson from 1 Corinthians 1-6, this is why we should refrain from fornication, that is, we are away from God.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which is yours in Christ Jesus,(Phil 2:5)" The second application is to fill our body, the temple of God, with Jesus. It is the challenge that beyond the stage where we feel peaceful with the heart of Jesus only, we should go forward to 'the stage where we should think in the way that Jesus does by filling our inner self with what Jesus has within himself'. This is what a Christian whose body is God's temple ought to do. Beloved everyone, the resurrection definitely exists. The Apostle Paul says clearly about how our bodies will be transformed at time of the resurrection. Among those pieces of knowledge, I hope and bless in the Lord that you and I aspire for the glorious image that will be in the resurrection and at the time of the resurrection, and experience the glory of the resurrection from now on.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2023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되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되다



피터 릴백 총장



조나단 깁스 교수



한규삼 목사



권성수 교수



강명옥 박사



권혁민 교수

2023. 10. 17. (화)

09:30 - 15:30

충현교회

1부

09:15~09:35	찬양 및 기도	충현교회 금요찬양팀	본당
09:35~09:40	오전 사회자 오프닝 인사말	권혁민 목사	본당
09:40~09:50	주제: 리딩지저스의 사역의 의미와 가치	피터 릴백 총장 (통역: 조주경 목사)	본당
09:50~10:30	주제: 성경과 성령, 주님과 밀착	권성수 목사	본당
10:30~10:40	휴식시간		본당
10:40~11:20	주제: 언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Kingdom through Covenant)	조나단 깁스 교수 (통역: 조주경 목사)	본당
11:20~11:25	KMATS 영상		본당
11:25~12:05	주제: 사도행전의 끝맺음(행 28:30-31)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중심성	한규삼 담임목사	본당
12:10~13:30	점심식사		식당

2부

13:30~13:35	오후 사회자 오프닝	김은수 목사	본당
13:35~13:45	특순		본당
13:45~14:25	주제: 그리스도 중심 묵상과 기도	강명옥 전도사	본당
14:25~14:35	리딩지저스 소개와 현황	박동진 목사	본당
14:35~15:25	포럼: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사례 소개 (서울 흥성교회, 강변교회, 대구 삼덕교회)	서경철 목사	본당
15:25~15:30	폐회	김은수 목사	본당

지난 2022년 하나님께서 충현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함께 ‘리딩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충현교회는 2022년 10월 1회 리딩지저스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에 ‘리딩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와 충현교회 성경통독 사례를 소개하여 한국교회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가 확산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를 한국교회에 소개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는 리딩지저스 성경통독 2023에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 말씀의 잔치에 나오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더욱 깊은 성경통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회 리딩지저스 컨퍼런스 이후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읽기에 동참한 교회명단

가촌교회 강변교회 검단우리교회 광주서광교회 광주영광교회 구미새로남교회 대구삼덕교회 대구성명교회 대봉교회 대전광명교회 동산교회 동은교회 디사이플교회 밝은빛전원교회 부산서부교회 비전교회 삼부제일교회 서울흥성교회 성산교회 성주감리교회 수영로교회 신가평교회 신용산교회 안양신일교회 영동중앙교회 예수사랑교회 온사랑의교회 용인명지교회 울산영신교회 일산현산교회 정남중앙교회 천안아산주님의교회 화전중앙교회 등

대상

충현교회 모든 성도

등록 및 신청 (오늘 등록 마감)

홈페이지 및 QR코드
또는 각 교구 간사
(부서: 각 부서 사역자)



※ 당일 등록시 점심제공 불가

문의

김승래 목사(010-5526-1324)
최병일 안수집사(010-7534-2952)

주최

충현교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리딩지저스 미니스트리



매주 풍성한 말씀의 잔치가 열리는 성경 아카데미!!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면? 성경이 산 같이 느껴져서 친절한 가이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주일을 영적 유익함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고 싶다면? 성경아카데미로 오세요.

충현 성경 아카데미는 나이 상관없이, 교구 상관없이, 부서 상관없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은 모든 성도를 위한 강좌입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23년 현재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통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주 부교역자들이 2달씩 돌아가면서 각인각색의 다양한 색깔로 통일된 말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면 강의를 통해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 없거나 반복하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현장강의를 녹화하여 영상 강의로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하시어 함께 말씀의 은혜로 풍덩 빠져봅시다.

언제? 매주일 12:30-13:20 (11시 예배 드리고 국수 드시고 오시면 딱이죠 ^^)

어디서? 제1교 304호 (에스라반 : 현재 사도행전 강해) / 제1교 401호 (아볼로반 : 현재 선지서 강해)

누가? 충현교회 부교역자

	아볼로반(제1교육관 304호)	강사	에스라반(제1교육관 401호)	강사
8월 4주 - 10월 3주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8주)	위안복 목사	선지자와 왕 (8주)	윤준식 목사
10월 4주 - 10월 5주	모든 이를 위한 말씀 묵상 특강			
11월 1주 - 12월 4주	하나님의 편지 (8주)	이수경 전도사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8주)	정석훈 목사

어떻게 신청? 1) 큐알 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대면 강의, 영상강의 모두 신청 가능)

2) 영상 강의는 현장 강의를 녹화해서 제공해드립니다.

문의? 아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장: 박옥현 집사 010-2527-8075 / 부감: 이승득 집사 010-8494-8805 / 박미혜 권사 010-5232-7514



권사회 영성훈련 후기

지난 9월 19일 화요일,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권사회에 소속된 회원 600여명이 본당에 모여서 전체 영성훈련을 가졌습니다. 1부 특강에는 전주 덕진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레크레이션과 점심 시간 이후 2부에는 권사회를 지도하시는 윤성복 목사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영성훈련을 통해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권사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가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회 영성훈련을 은혜로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처음 권사가 되었을 때를 돌아보니 첫사랑의 때처럼 가슴이 벅차온다. 아무 쓸모없고 허물 많은 나를 섬김의 귀한 직분으로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계획안에 한 귀통이를 담당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막중한 책임감이 내 안에 일어난다. 그러나 처음의 그 감격과 감사함과 책임감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 나태해져 있는 듯한 나를 보게 되고 계속되는 다음 기수의 권사님들이 성실과 열심으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것을 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을 향한 방향을 잡고 잘 가고 있나를 점검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 이제 은퇴할 날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지금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나무에 맺혀있는 과실이 시간이 지나 알차게 무르익어 많은 사람에게 맛과 유익을 전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간이 지날수록 섬김의 자리에서 선배 권사들의 섬김을 이어받고 후배권사들의 열심을 도전 받으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지체들을 잘 섬기는 귀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마음에 새겨본다. 이번 영성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기쁨 받으실만한 섬김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10교구 이경희 권사

드높은 하늘, 9월이 오면 권사회 영성훈련 일정을 맞이하게 된다. 올 해는 어떤 메시지가 내 마음을 울리고, 새로운 각오를 주님이 주실까? 우리 5교구 담당목사님이셨던 이기성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해 오심은 넘 반갑고 마음이 설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몸 담고 계셨던 교회를 오시니 목사님도 우리처럼 설렘으로 오셨겠지...타 교회 담임으로 가신 목사님을 강사로 순번을 정하여 오실 수 있게 하신 한규삼 담임목사님의 지혜와 배려하신 전통은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되었다. 오늘의 특강은 '믿음, 소망, 사랑' 주제로 짧고 귀에 너무 익숙하지만 열띤 말씀으로 깊이 있게 기쁨이 넘치는 또 한 순수하게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 교회 70주년에 많은 행사들에 발맞추어 권사회 영성훈련을 알차게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원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 끝남이 아니 새로운 시작으로 성도가 성도되는 것,교회가 교회가 되는 것 다시금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5교구 송계월 권사





2023년 외선부 가을 수련회 행사 후기

외선부에서는 일 년에 두번 추석연휴와 설날연휴 중에 1박 2일로 '가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추석연휴에는 지난 "9월 28일(목) - 29일(금)"에 "열방의 목전에서"라는 주제로 충현교회와 기도원에서 개최하여 70여명의 외국인과 편안한 가운데 서로 교제를 나누며 위로해주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외국인 지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행사에 참여한 모습과 소감을 교회와 나누어 봅니다.



"The retreat was very fun, I learned a bunch of interesting things on the first day, and I really liked the places we visited on the second day. And I also loved the food jeje". 연합팀 Diego Paredes 형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 수련회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과 통성기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외선부 성도들의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게 해주시려고 쌀밥에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 요구르트, 사탕, 과자... 심지어 밤참으로 피자까지 음식을 골고루 해주시고 또 한국에서 유명한 동굴까지 구경시켜주셔서 그 멀리 충청도까지 가서 동굴 구경도 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이 많고 헌신해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과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위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선부 성도님들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열심히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추석 수련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행하면서 마음에 상처도 씻고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중국팀 이순자 자매

일주일전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아는 언니가족을 수련회에 초청을 약속해서 함께 참석하였다. 천국에 가는 길을 여러 활동을 하며 배웠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했음을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언제나 유혹과 걱정이 와도 예수님만 믿어야 하겠다 생각했다.

베트남팀 국화 자매

주님의 은혜 충만함 가운데 가을수련회를 허락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외선부 지체와 도우미들의 추석연휴 헌신 및 열정적인 섬김으로 객지에서 사는 외국인들이 충만함 가운데 따뜻함을 느끼며 천로역정 고수동굴 좁은 길을 올라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중국팀 김미자 팀장

"열방의 목전에서"(이사야52:10) 주제로 열린 외선부 가을수련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원은 열방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로 차고 넘쳤으며 아름다운 협력의 동반자로 함께한 브릿지공동체 봉사자들로 젊음 또한 가득했지요. 참여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로역정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외선부 가족 모두는 천국복음의 메신저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예수님 가족 공동체로 하나되길 기도합니다. 네팔팀 최정희 순장



